

“

# 행복해지도록 그리스도께 청하십시오 성 바오로 미키

”

글\_서희정 마리아 | 그림\_홍미현 세레나



휘이잉- 바오로 미키의 삶은 무더질 대로 무더져 모든 감각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살점을 뜯어내는 듯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했다. 발은 짓무를 대로 짓물러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아닌 핏자국을 남기고 있었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일본의 모든 권력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첫 예수회 수사였던 바오로 미키의 십자가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교토에서 붙잡힌 바오로 미키와 동료 25명의 그리스도인을 굳이 나가사키에서 처형시키고자 한 것도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가사키에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나가사키를 향해 걸은 지, 27일째. 바오로 미키는 바닷가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온 몸의 감각이 되살아남을 느꼈다.

“그러길래 왜 믿지 말라는 신을 믿어서 저런 꼴을 당해! 게다가 무사 집안 출신이라면서? 일본의 전통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쫓쫓쫓.” “지금쯤 저 사람도 후회하겠죠. 뭐. 에고고, 저 물골 좀 봐.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우리는 절대! 기리스탄(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요.” “아, 당연한 얘기를 뭐 하러 해? 기리스탄의 ‘기’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지만 바오로 미키는 구경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기쁨이 온 몸을 뜨겁게 할 뿐이었다.

“제가 죽게 된 것은 그리스도교를 믿고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죽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도와달라고 그리스도께 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저를 박해한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박해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길 청합니다.”

말을 마친 바오로 미키는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함께 매달린 그리스도인들도 바오로 미키를 따라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혼란스러웠다.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죽는 순간에도 저리 행복해할까? 어떻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노래가 계속될수록 구경꾼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궁금증을 넘어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게 뭐야? 노래! 노래를 못 부르게 해! 어서!” 구경꾼들 사이의 변화를 감지한 병사들은 당황한 나머지 바오로 미키와 25명의 그리스도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의도대로 노랫소리는 곧 멈췄지만 진정한 행복에 대한 마음의 울림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 “인간의 성(性)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되게 합니다.”

성(性)은 인격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성(性)이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친교(우정)를 나누고,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적 사랑을 주고받는 양식의 하나입니다. 성(性)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되게 하는 특성’을 지니며 각자의 자신의 고유한 성(性)을 드러내게 됩니다.(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지침 4항)

글\_생명위원회